

'설' 레는 연휴... 문화예술을 집에서

문광부, 비대면 공연·전시
'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
'박수근 전' 등 260여편 소개
'ACC 탱고 프로젝트'도 상영

'설 연휴, 집에서 문화예술을 즐긴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견희 컬렉션과 박수근의 작품을 만나고 국립극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 콘텐츠도 감상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국립 문화·예술기관의 비대면 공연·전시·행사 등을 통합 안내·제공하는 '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을 '집콕 문화생활' 사이트(<http://www.culture.go.kr/home>)에서 진행 중이다.
각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비대면 문화·예술·체육·관광 콘텐츠 260여건을 만나는 특별 기획이다. 또 각 기관들 역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니 차분히 살펴보면 좋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화제를 모은 굵직한 기획전을 '큐레이터 전시투어' 시리즈로 선보인다. 덕수궁분관에서 열고 있는 '박수근:봄을 기다리는 나뭇'전을 비롯해 '이견희 컬렉션 특별전:한국미술 명작', '덕수궁 프로젝트 2021, 상상의 정원', '대지의 시간' 전 등 인기 기획전을 각각 30분 분량의 동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채널에는 최근 140만 조회수를 돌파한 'VR 미술한류 영상' 시리즈 '서도호 작가의 카르마(Karma)'와 이수경 작가의 '달빛 왕관·신라 금관 그림자'를 비롯해 패션 디자이너 페기 구, 루시드폴, 정재형의 공연을 담은 MMCA 라이브 등 미술 콘텐츠 영상 1245건이 실려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도 눈여겨 볼 만하다.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고(故)이견희 회화 기증 명품전', '안토니 반 다이크가 남긴 위대한 유산', '시대의 얼굴전' '초상화에 감춰진 영국 왕실의 코드', '시대의 얼굴, 세익스피어에서 에드시란까지' 등 특별전과 함께 '전수관음보살도', '규장각 의궤', '금속활자' 등의 의미있는 소장품전과 국보 반가사유상 '사유의 방'을 만난다.
또 '박물관 속 피아노' 시리즈를 통해 선보였던 피아니스트 양방언, 이진아 트리오, 윤석철 트리오의 공연도 만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광화문의 역사·현재·미래를 주제로 가상과 현실을 연결해 실감콘텐츠로 구현한 '광화풍류'와 경북공 발굴·복원 30주년을 기념한 문화재청 특별전 '고궁연화'를 선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제작한 메타버스 체험 공연 '비버런'

국립극단은 한국 리얼리즘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으로 정경순·김명수가 열연, 전석 매진을 기록했던 신작 공연 '만선' (전승세 작·심재찬 연출)을 선보인다. 또 국립오페라단의 '베르디 갈라', 국립현대무용단의 '하트의 장례'와 '탈옥 춘향'과 '늙은 부부 이야기', 국립중앙극장의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 국립극단의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등 화제작들을 만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제작한 작품도 만날 수 있다. 5·18을 소재로 한 '시간을 질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메타버스 체험 공연 '비버런', '두 개의 눈', '호모포에넌스', '슬로우우우', '마리자' 등의 공연 영상을 만날 수 있다. 또 월 드뮤직페스티벌에서 선보였던 'ACC 탱고 프로젝트'도 상영된다.

한국문화정보원의 '200초로 즐기는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 유산' 시리즈는 훈민정음, 화순강화도 고인돌, 난중일기, 동의보감, 조선왕궁, 석굴암, 한국의 서원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주리시아한국문화원이 공개하는 '케이팝 커버댄스 페스티벌', 주원기리문화원의 '부다페스트에서 한류를 켜다' 등도 소개되며 한국도서관협회와 고미술 등을 초청해 진행한 '2021 일상의 인문학', 홍석천이 참여한 인생나눔 멘토 등 다양한 강연도 들을 수 있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나주박물관의 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아기돼지 삼형제', '천문관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도서관에서 만나는 로봇 친구' 등이 눈길을 끈다. 그밖에 한국관광공사의 여행지 추천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집에서 즐기는 운동(홈트)!'도 만나볼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가볍게 즐기는 인문학 도서



이번 설 연휴에는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읽으며 독서 심매경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연휴에 읽을 만한 가볍지만 의미 있는 인문학 관련 책 5권을 소개한다.

▲이약 한번 잡춰봐!(최규진 지음)
프랑스 지식인 레지스 드브레는 "이미지는 글보다 전염성이 강하고 바이러스성을 띤다. 이미지는 신념 공동체를 뿔뿔히 찢어 놓아 타율한 재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지가 공동체의 가치를 전파하고 결속하는 기제라는 의미다. '이약 한번 잡춰봐!'는 광고 이미지를 통해 근대 풍경을 들여다 본 이색적인 책이자 약과고로 들춰 본 일제강점기 생활문화사다. 저자가 단순히 검색만으로 확보할 수 없는 시간과 눈 공(功)을 토대로 10년 간에 걸쳐 완성한 결과물이다. 책에는 풍부한 근대 풍경이 소환된다. (서해문집·3만3000원)

▲그 옛날의 트로트(박광희 지음)
트로트의 인기가 식지 않을 만큼 TV 채널을 둘러다보면 쉽게 트로트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트로트의 부활은 기성세대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복고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해석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왜 사람들은 트로트에 열광할까? 트로트의 부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칼럼니스트 겸 역사분야 출판기획, 저술가로 활동하는 박광희 작가는 트로트에는 우리의 '한'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우리 모두의 인생사가 담긴 트로트를 조명한다. 시인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트로트 노랫말인 불후의 명곡 '별남은 간다'를 비롯해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등 노래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다양한 사연을 만날 수 있다. (범우·1만8000원)

▲시골뱅집에서 균의 소리를 듣다(와타나베 이타루 지음, 정문주 옮김)
'인간이 목숨을 유지하려면 자기 외의 존재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첫 문장부터 강렬한 질문을 던지는 저자는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차근차근 풀어낸다. 일본 변방의 뻥집 주인이었던 와타나베 이타루와 와타나베 마리코 부부. 2014년 이들 부부가 쓴 '시골뱅집에서 자본론을 굶다'는 거대한 자본에 저항하는 소박한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후 이들 부부는 가족화하는 자본의 시대에서 찾은 새로운 삶의 열쇠를 찾았는데 다름 아닌 '균'이었다. 이들은 균을 통해 만든 사람은 물론이고 뻥집의 위생, 마을 전체의 환경과

도 연계돼 있다고 본다. 단순히 뻥을 만드는 데서 나아가 자연에 가까운 삶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한다. <더숲·1만6000원>

▲신발, 스타일의 문화사(엘리자베스 세멜렉 지음, 황희경 옮김)
샌들과 부츠, 하이힐, 스니커즈에 담긴 시대 정신과 욕망을 읽어낸 책. 옷이 사람을 말해주는 것처럼 신발 또한 그러하듯 '성별과 성격은 물론 추구하는 가치까지' 많은 것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바타 신발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 엘리자베스 세멜렉은 네 가지 주요 신발의 전형인 샌들, 부츠, 하이힐, 스니커즈에 초점을 맞춰 정점을 조명한다. 저자는 이전에는 복식 액세서리가 성별과 계급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지금은 신발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 <아날로그·2만8000원>

▲다시, 오래된 다리를 가다(이영진 지음)
'노두(路頭)는 나루터나 징검다리(石橋)를 이르는 전라도 방언이다. 신안 앞에도 주변에는 노두를 만든 흔적이 많은데 섬물을 이용해 짚은 거리의 갯벌을 건너기 위해 만들었던 장치다. 여러 노두 가운데 특히 압태도와 추포도를 잇는 노두가 으뜸이었다. 지금과 같은 연륙교가 있기 전 섬 주변에는 그렇게 징검다리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태도와 추포도를 잇는 '다리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리 위용이 만만치 않다. 이밖에 책에는 추포 노두길을 비롯해 단종의 낚을 기리는 주천강 쌍 섬다리, 천년의 비밀을 간직한 진천 농다리, 아름다운 향기로 세상을 취한 경북공 취향교, 누각을 품은 이채로운 아담다움이 빛나는 태안사 능파각 등이 소개돼 있다. <루아크·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29일~2월 2일 '박물관에 왔어~흥'

국립광주박물관은 29일부터 2월 2일까지(단, 2월 1일 설날 당일 휴관) 온·오프라인으로 설맞이 우리 문화 한마당 '박물관에 왔어~흥'을 개최한다.
'어~흥나는 광박이 게임: 광박이 미션'(30일)은 '오징어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의 전통놀이)를 모티브로 한 메타버스 미션 팀 빌딩으로 홈페이지 사전 신청자에 한해 진행될 예정이다. 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는 '사라진 레스토랑'(1월 29일~2월 2일)은 마법 레

스토랑에 방문한 사라진 위인들의 이야기로, 위인과 마술 종업원의 대결로 진행되는 스토리텔링 마술공연이다.
설 연휴기간 중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호랑이 친구 모두 모이세요', '범인발견(박물관 속 호랑이 찾기)', '어흥어 흥 신동방동 웃찾, 어~흥나는 광박이 게임: 전통&추억의 놀이'를 진행한다.
어린이박물관은 홈페이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기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임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박종길(91025-XXXXXX)
• 최후주소: 광주 서구 마북동 166, 202동 1203호(쌍촌동, 쌍촌중·명지아파트)
피상속인 망 박종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 정법원 2022년 1월 27일 56호로 신청하여 2022년 1월 2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월 28일
• 상속인: 박호민(781002-XXXXXX) 광주 서구 윤천로 154번길 12, 101동 1507호(쌍촌동, 쌍촌중·명지아파트)
• 신고기간: 2022. 1. 28. ~ 2022. 4. 9.
• 채권신고처: 상속인 박호민의 주소

분할합병공고
2022년 1월 27일 각자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원일토건(이하 "갑")의 소방시설공사인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주식회사 제이엘이엔지(이하 "을")와 분할합병("갑")의 소방시설공사인 부분의 권리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주총회결의도 동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8일
"갑" 주식회사 원일토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천로 37-9, 304동 312호(원곡동, 트라플렉스)
대표이사 성 경 만
"을" 주식회사 제이엘이엔지
전라남도 장성군 동하면 민평길 66
대표이사 김 선 영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 및 주권채출공고)
주식회사 명성나노시스템(이하 "갑"), 경기방재건설 주식회사(이하 "을")와 주식회사 대성전력(이하 "병")은 2022. 1. 27. 개최된 각 주주총회의결로 "갑"의 영업 일부인 정보통신공사인, "을"의 영업 일부인 소방시설공사인을 각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병"이 합병하고 "갑", "을"은 존속하지 않는다는 부회의 결의, "을"의 권리의무를 "병"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갑", "을"의 해당 주주총회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8일
"갑" 주식회사 명성나노시스템
경기도 의왕시 미로로 40, 비동 711호
(포일동, 인덕원이아파트)
대표이사 이 금 진
"을" 경기방재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76, 507호
(인계동, 동부프라자)
대표이사 김 석 원
"병" 주식회사 대성전력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로 61-14(수성동)
대표이사 정 세 진

70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내
북 구 • 동 266-1920 • 문 266-1960
• 북 525-3761 • 신 222-8171
• 광 571-7658 • 오 266-7801
• 용 433-1503 • 우 433-1503
동 구 • 남 673-6836 • 동 222-9054
• 동 225-6001 • 중 222-9054
• 중 222-8171
남 구 • 남 673-6836 • 북 651-1833
• 북 673-6836 • 송 675-6805
• 진 671-7276
서 구 • 광 382-5788 • 상 372-2352
• 서 369-1625 • 문 376-7153
• 치 376-6511 • 풍 603-0311
• 화 369-1625
광산구 • 온 952-1687 • 월 950-1920
• 청 973-2900 • 하 955-0451
• 광 944-0444

구독문의
신문 220-0551
예향 220-0550